

지상법석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3)

釋難文 (석난문) ①

非求錫角利名也 비구와각리명야 爲生死也 爲家生也 위생사야 위중생야 爲斷煩惱 위단번뇌

이곳과 명예를 놓고 부질없이 다투어 구하려 함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관문을 위하고(해결하고) 중생을 위하여 번뇌를 끊어

出三界 續佛慧命也 출삼계해 속불혜명야 去惡斷善 佛法 大壞 거성시요 불법 대괴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함이니라. 성인(부처님)이 가신지 오래이라 불법이 크게 무너졌거늘

汝 敢望爲爾 여 감망위이 寶策經云 比丘 不修此法 大千 無 보량경 운 비구 불수비구법 대천 무 睡處 타처

네가 감히 바래어 이렇게 하겠느냐. 보량경에 이르기를, 비구가 비구법을

구부지삼승십이분교 주공공자지도 그러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하되 진실로 삼승 12분교와 주공·공자의 도를 알지못하고

不明因果 不達己性 불명인과 부달기성 不知修福難難 不念信施難難 부지가책간난 불념신신산소

삼세 인과를 밝히지 못하며, 자기 성품을 요달하지 못하고, 곡식심이 거두는 그 어려움을 모르고, 신심어린 시주의 소화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徒飲酒食肉 破齋犯戒 도음주식육 파재범계 行商坐賈 偷竊博奕 형상좌교 투간박역

참부로 술마시고 고기먹고, 재를 울리지 않고 계율을 범하며, 부처님을 돌아다니며 팔고 앉아서 팔고, 간음하고 노름·장기바둑에 빠지고, 毘羅院舍 車蓋出入 奉養 一而已 悲夫 기유원사 거개출입 봉양일기이기 비부

이질 저질 기웃대며 보금자리 들 궁

“출가하여 십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백년 섬겨도 헛된 일이다”

닥지 아니하면 삼천대천세계에 참밭을 리나 하고, 차타고 드나들며 제한몸 봉 곳이 없다고 하고 양할 따름이니 슬프도다

通經云 爲僧 不預十科 事佛 徒勞百載 통해록 운위승 불예십과 사불 도로백재 爲之不能 得乎 위지불난 득호

통해록(승고승전)에 이르되, 중이되어 십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섬기며 백년을 섬겨도 헛된 일이라 하니 (스님이)되기 어려운 줄을 알겠느냐

以是觀之 予 滯阿僧倫 有對於佛 이시관지 여 랍치승륜 유태어불 況汝爲之耶 황여위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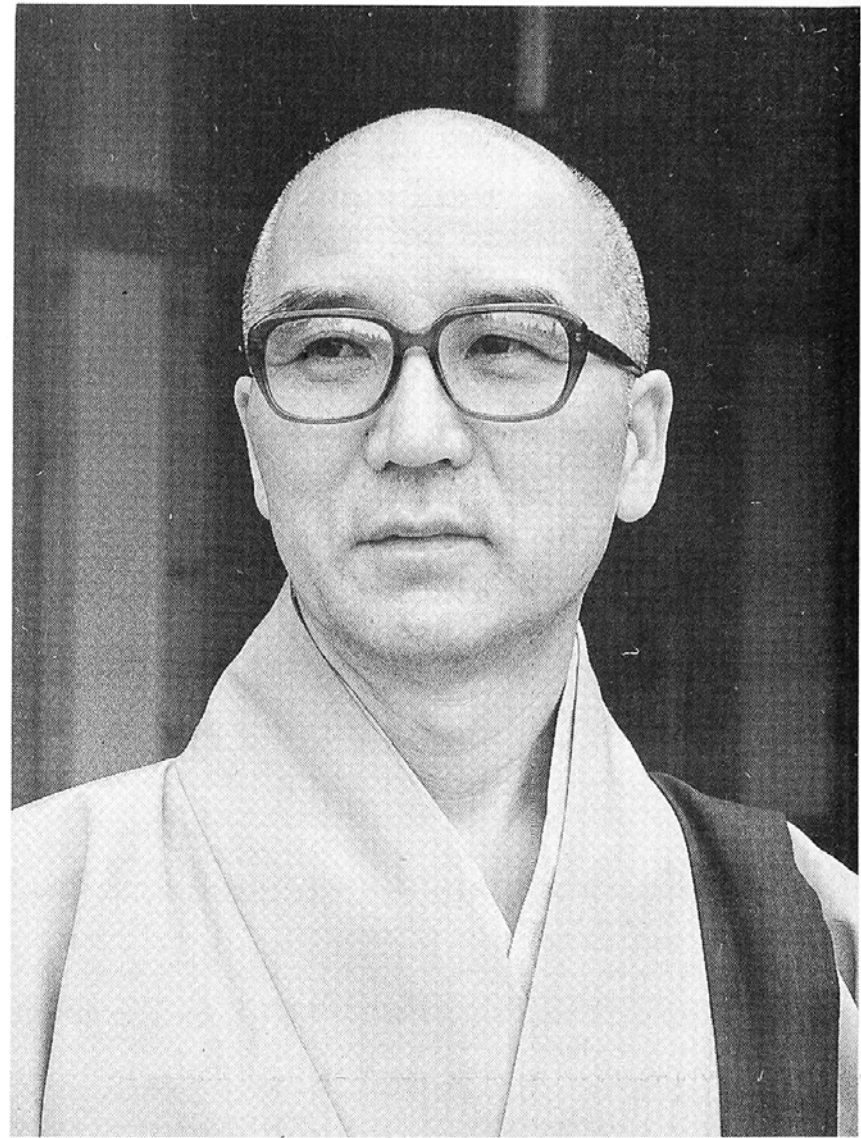
이로써 보건대 나도 의람되게 승륜(승단)에 끼어들어 부처님을 속인게 되거늘 하물며 네가 하려 하느냐.

然 出家爲僧 然 出家爲僧 苟不知三乘十二分教 周公孔子之道

龍眼

“나를 양보하고 희생할때

진철스님 율도사 자비원 원장



약력

- 1940년 공주 생
1964년 공주 마곡사 입산
1971~1978년 마곡고등학교 교장
1979, 198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역임
마곡사, 낙산사 주지 역임
강릉자비복지원 원장 역임
현재 통도사 선원 주석 중

요즘 산사에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법당이나 대종방, 공양간이나 곳간을 가릴 것 없이 채워져 있는 자물통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사찰경제가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산사의 50이상 먹은 중진스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이밥에 두부 부침과 김, 미역국을 먹는 큰 재가 들어 오는 날은 일년에 손잡을 정도였는데 요즘을 젊은 수좌들은 너무 호호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탄과 우려의 소리를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공립 속의 구도생 몸소 체험한 세대에 속합니다.

산중에는 그러한 내림 생활속에서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무슨 수행이 되겠는가'라는 노스님들의 꾸지람이 끊일 새 없었고, 비록 허기에 지친 수좌들이었지만 구도 열정에 타오르는 눈빛만은 중생세계를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같은 몸살병에 걸릴라 치면 요점처럼 고기도 먹고 보약도 지어 먹으면서 치료를 하기는커녕 감로수와 같은 공기를 탕제삼아 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기도했습니다.

“허깨비 쫓는 몸뚱이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무엇을 해탈이라고 찾는가”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라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출가 수행자들의 집단인 우리 승가에서도 재정이 조금 넉넉해지는 듯 싶자 고급 음식에 고급 차, 고급입소 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재가부부들로서는 선진국 집안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에 약간의 과소비와 향락추구가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쾌락을 향한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입제록》으로 유명한 조주(趙州)선사는 수행자들이 자칫 빠질까 쉬운 쾌락의 미망에 대해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몸 같고 허깨비같이 따라 다니는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마라.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이 세계속에서 무엇을 해탈이라고 찾는가? 그저 한 술 찾아 먹고 두더기 쫓으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선지식

을 찾아 범도록 해야지 쾌락이나 쫓아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된다. 촌음(寸陰)을 아껴야 하니 생각생각 덧없이 흘러가 거칠게는 지수화중 4대(四大)에, 미세하게는 생주 이밀 4상(四相)에 조여들게 된다.”

불과 1백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썩어 흩으로 돌아갈 몸뚱이에 수백만원짜리 옷을 걸치고 수십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시시각각 붕괴되는 육신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 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가수의 대중가요에는 ‘땀뚱으로 와서 땀 한 방울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개 전체로 볼 때에 가는 길에 걸치는 수의 마저도 몸뚱아

리와 함께 썩어 흩으로 돌아가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라는 허망한 의복을 걸친 영성(靈性)의 광휘를 발견하여 무탐(無貪), 무욕(無欲)의 빛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이제는 사람이니 나뉘이니 배품이니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차츰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위한 기복과 공덕쌓기만이 아닌 참다운 보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점차 눈떠가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개 전체로 볼 때에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사

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 보살피는 사회복지 사업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비록 타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날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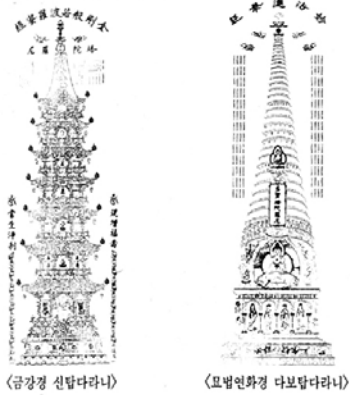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눔과 보시의 차이입니다. 서구적 개념의 ‘나눔’이란 언제나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던 말입니까.

구미의 산업혁명영역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 있어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인간적 불평을 초래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고금 백색공단 선 탑에 100% 순수 인장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 62cm x (세로) 160cm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3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과장되는 氣(氣)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과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운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당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할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 책자는 현재 사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은...
1. 신도 개인의 현재의 운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2. 영가의 병의상해,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병의 및 관념과장을 원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3.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4. 산소에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쳐도록 하여 후손들이 번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5.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번치도록 하여 만사행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호를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할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무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쳐져 그 역활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불교계·유일·의·종합·학술·정보·잡지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계간《多寶》는 창간호(1982.3)부터 16호(1995.12)까지 4년2개월 3호를 4호로 묶은 4호호를 보급합니다.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4호간) 20,000원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85-0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대한불교진흥원 통신판 059-01-197161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회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고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읽으시려면 계간《多寶》를 보십시오

계간 多寶는

-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계간 多寶는 시론, 논단, 기획특집을 비롯하여 타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자료 및 주목받는 발문자료 등 기획물이 풍부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자 여러분 곁에는 늘 多寶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모신다 선생님을 소중히 독자를 모시겠습니다.

발행/보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多寶》 (전화) 02-719-1855 (FAX) 02-719-5052